

#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소연	소속(학부/과)	경영학과
파견 학기	2018년도 2학기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Niagara College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교 입학 때부터 다른 나라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여행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수능을 위한 영어, 토익공부만 해왔던 터라 영어회화는 접해본 적이 없어서 교환학생을 가더라도 수업을 잘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학년도 1학기에 캐나다인 교수님에게 영어회화 수업을 듣고 캐나다라는 나라의 문화, 이야기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 교환학생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보다 캐나다 어학집중 교환학생 모집공고를 발견했고 꼭 지원해보고자 다짐했습니다. 파견 학교에 가서 전공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러 가는 어학연수의 개념이라 오히려 영어와 회화를 배우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항공권 구입과 캐나다 학교 등록, 홈스테이 연결 및 신청 등 웬만한 절차는 학교 측에서 해줍니다.

■ 비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나눠준 자료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한화로 약 7000원입니다. ■ 캐리어는 가장 큰 걸로 2개 들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능하면 한국에서 마른 반찬이나 햇반 같은 한국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음식이 제일 그리웠고 매일 피자, 햄버거 같은 것을 먹으면 힘듭니다. 아니면 토론토 갔을 때 한국마트에서 사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교 근처 마트에 라면 종류나 김치는 팔지만 그 외의 것은 잘 팔지 않습니다. 버스로 30~40분 거리에 한식당이 있어 한식이 그리울 때 가면 좋습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라 자주 사먹지는 못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한국 스타일의 옷을 찾기 힘들어서 집에서 많이 챙겨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준비물은 인터넷에 '교환학생 준비물' 목록보고 꼼꼼히 챙겨가길 바랍니다. ■ 유심은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학교 근처 마트에서) 살 수 있지만 매 달마다 구입하러 가야해서 귀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나이아가라컬리지는 웰랜드라는 소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라 차타고 15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버스 탈 경우 환승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도시 토론토는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이며 웰랜드는 미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차로 30분이면 국경을 건널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분위기였습니다. 학교 크기는 가로로 넓고 엄청 크지도 않고 적당한 규모입니다.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9월 한달 간은 한국의 여름처럼 더웠고 10월은 가을 날씨처럼 쌀쌀했고 11월, 12월은 한국의 겨울 만큼 추웠습니다. 학교 바로 앞 술집은 1개 있고 웰랜드 안에서는 5개 내외정도 있습니다. 근처에 푸드베이직, 제어스 등 마트가 있고 버스타고 15분 거리에 펜센터라는 아울렛몰과 영화관이 있습니다. 30분 거리에는 세인트케서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카페, 음식점이 많아 자주 갑니다.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이 없고 길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먼저 "hello" 인사해주고 대부분 친절합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본인 영어 실력에 따라 레벨1~5 중 하나가 정해지며 그 반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인터뷰 포함 총 3번의 레벨테스트를 하는데 인터뷰 때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미, 학교소개 등 간단한 것을 묻습니다) 어학집중 교환학생은 강의실에서 전공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학당 같은 시스템으로 영어만을 배우기 때문에 스피킹&리스닝, 리딩&라이팅, 그램머 3가지 과목을 듣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수업이며 8시 30분이 1교시이고 마지막 수업이 늦으면 7시 반에도 대부분 5시전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의 반은 베트남 학생이 반 정도 있었고 일본,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등등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높은 레벨에 들어가야 한국인 학생이 적고 외국 학생들이 많아서 가기 전 영어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서 높은 레벨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호스트는 굉장히 친절했고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먹었으며 도시락을 매일 싸갔고 저녁은 호스트와 함께 먹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저의 경우 호스트,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셋이 살았습니다. 기숙사 비는 달에 한 번씩 나눠서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매달 CAD750씩). 근처 마트에 atm기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뽑아서 지불했습니다. 3개월+15일 동안 한화로 총 220만원의 숙소비가 듭니다. 한국과 달리 맨발로 돌아다닐 만큼 바닥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화를 들고 오거나 구입하길 바랍니다. 숙소비 제외 일반 생활비는 한 달 약 40만원 정도 해서 4달간 150만원~200만원 용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이라면 캐나다는 물세가 비싸 10분 이내로 샤워를 해야 하는 규율이 있는데 저는 샤워하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라 씻을 때마다 눈치를 봤었습니다. 호스트의 성격에 따라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얘기도 듣고 경험에 따르면 홈스테이의 호불호는 호스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호스트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들을 위한 매주 1, 2회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이아가라컬리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만 쓰고 신청가능 하며 토론토, 나이아가라폴스, 동물원, 놀이공원, 마켓, 스포츠게임 등등 친구들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반 학생들과 같이 신청해서 교외에서 노는 것이 제일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주 액티비티에 꼭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내 피자, 햄버거 가게가 있고 'Tim Hortons'라는 캐나다 국민카페가 있고(1500원~3000원대로 저렴하고 맛있어서 자주 사먹었습니다) 'Subway'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점심시간에는 보통 호스트가 싸준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는데 여기서 가끔씩 햄버거나 피자를 사먹었습니다. 이외에 헬스장, 탁구대, 농구장, 카페테리아, 도서관, 열람실, 문구서점 등등이 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교내에 술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팔기도 합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hello' 인사를 합니다. 메가버스가 2시간이상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따로 안내도 없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처리가 느긋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크게 문화적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다만 아시아인들은 과하게 예의 바르다고,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움츠러들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IP: ■교환학생 가기 전 영어공부 해서 높은 레벨 반에 들어가기(높을 레벨 반 일수록 한국인 비중이 적습니다. ) ■매주 열리는 액티비티 꼭 참여하기(공부에서 벗어나 캐나다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내여행지 알아보기(중간고사 끝나고 1주일간 자유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퀘벡, 몬트리올 등 근처 도시를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모든 학기가 끝나고 뉴욕 여행하고 한국가기(비행기 1시간으로 뉴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남았다면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유심 구매하기(캐나다 현지에서 사면 1달마다 구매해야 해서 귀찮습니다) ■헤드셋 필요 없습니다(리스닝 수업 때 헤드셋 구매하라고 하는데 이어폰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쓸 수수료 적은 카드 찾기(하나은행 비바체크카드 추천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 가기 전 몇 주 동안 스스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낯선 환경에서 힘들진 않을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가보니 좋은 친구들과 호스트 덕분에 잘 적응했고 한국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캐나다는 나라와 학교 친구들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수업을 듣고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짧은 4개월이지만 영어회화실력이 꽤 많이 늘었다고 느껴집니다. 영어 이외에도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공유하며 각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 것이 신기했고 같이 한식당에 가서 한국음식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추억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살면서 영어를 시험을 위해서만 배워봤지 소통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질문을 하기위해, 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외국친구들이랑 SNS로 계속 연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이며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